

## 초등학교 고학년학생의 체형인식도, 식행동 및 식품기호에 관한 남녀별, 학년별 비교

노희경, 박종\*, 정은.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선대학교 예방의학과\*

Grade and gender differences in dietary behavior, food preference and perception about body ima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ee-Kyung Ro, Jong Park, Eun Jeong.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osun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hosun University, Kwangju, Korea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은 신체 발육이 정점에 도달하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점으로, 이 시기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사춘기 시작이 더 빠르고 신장, 체중 등의 뚜렷한 증가가 있어 남녀의 차이가 이 시기부터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 본 연구는 광주지역 초등학교 4, 5, 6 학년 남녀 학생 962명(여 : 49.7%, 남 : 50.3%)을 대상으로 학생의 체중조절인식도, 비만과 관련된 식행동 및 식품기호를 학년별, 남녀별로 비교 조사하고자하였다. 대상자의 평균신장과 체중은 각각 4학년은  $137.98 \pm 6.79\text{cm}$ ,  $32.69 \pm 6.09\text{kg}$ , 5학년이  $144.11 \pm 6.91\text{cm}$ ,  $36.88 \pm 7.60\text{kg}$ , 6학년이  $151.52 \pm 7.47\text{cm}$ ,  $42.68 \pm 8.06\text{kg}$ 이었으며 4학년 남학생은  $138.24 \pm 6.67\text{cm}$ ,  $33.27 \pm 6.60\text{kg}$ , 4학년 여학생은  $137.74 \pm 6.91\text{cm}$ ,  $32.13 \pm 5.53\text{kg}$ , 5학년 남학생은  $143.38 \pm 6.69\text{cm}$ ,  $36.89 \pm 8.00\text{kg}$ , 5학년 여학생은  $144.97 \pm 7.10\text{cm}$ ,  $36.63 \pm 7.12\text{kg}$ , 6학년 남학생은  $150.79 \pm 8.14\text{cm}$ ,  $42.95 \pm 8.90\text{kg}$ , 6학년 여학생은  $152.22 \pm 6.74\text{cm}$ ,  $42.43 \pm 7.19\text{kg}$ 으로 같은 연령의 한국인 소아발육 표준치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5학년, 6학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신장이 각각 1.59cm, 1.43cm 커서 이 시기에 여학생이 급성장을 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 같은 대상자 집단에서 신장의 최소치와 최대치가 6학년 남학생의 경우 44cm, 5학년 여학생은 40cm로 차이가 낮고 체중은 5학년 남학생은 무려 61kg, 6학년 여학생은 38kg 차이가 나서 대상자들의 성장이 개인차가 극심하였다. 또한 이상적 신장, 체중을 남학생은 현재 신장, 체중보다 증가하는 것, 여학생은 신장증가만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식사의 규칙성여부, 아침결식, 간식, 소고기선호, 닭고기 선호 등에서는 학년별 유의차이가 없었으나 음식점에서 밥양이 모자람, 자극성음식 선호, 기름에 볶은, 튀긴 음식기피, 야채선호, 전통음식기피, 생선 조개류 선호, 단음식기피, 서양음식선호, 인스턴트음식선호 항목에서는 학년별 유의차이가 있었다. 또한 아침결식, 간식, 음식점에서 밥양이 모자람, 자극성음식 선호, 돼지고기기피, 소고기선호, 닭고기선호, 기름에 볶은 음식기피, 생선류선호, 단음식기피, 서양음식선호, 인스턴트음식선호 등에서 성별간 유의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살찌는 것이 두렵고 소량씩 먹음, 먹고 난 다음 심한 죄책감을 느낌,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고 생각함, 살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음, 위가 비어있는 느낌이다라고 응답했으나, 저학년에서는 내가 말랐다고 남들이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비타민제 등 영양제 복용이 높아서 학년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하여 아침식사를 덜하고, 돼지고기, 단음식을 싫어하였으며,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음식을 소량씩 먹음, 먹고 난 다음 심한 죄책감을 느낌, 좀 더 날씬해져야겠다고 생각함, 살찐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음, 설탕음식피함 등에서 높은 응답율을 보여 성별간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